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축하

존경하는 루이스 아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님,

모든 키에룸 ICC 의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축하드리며, 세계 각국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시든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하시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외와 박해,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가슴,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정부와 그 밖의 권력과 맞서기도 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왔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인권을 유린당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경험한 만큼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수호와 신장을 위해서도 더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것은 2001년의 일입니다.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던 그 시기에 인권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새삼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것이 우리 인권사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수십년 동안 누적되어 온 많은 인권문제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1만건을 넘어섰고,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90% 이상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여러 법률과 제도들이 개선되었고, 또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아동·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단지 인권위원회라는 좋은 제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기는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승인한 정부정책을 전면으로 반대해서 대통령을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국가기관의 의사가 왜 그렇게 서로 갈라지느냐, 대립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인권위원회다.’ 이렇게 답변해 준 일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제

도에 이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과는 달라서 과거 모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권침해의 어두운 과거들을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고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다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인권선진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이번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그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을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희망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